

## 어리석은 리어왕

광화문·뷰



어 수 응

여론독자부장

12월엔 고전을 다시 읽는다. 시간을 이겨낸 작품을 교훈으로 삼자는 세밀의례다. 올해 고른 작품은 '리어왕'. 어리석은 판단으로 돌아갈 수 없는 파국을 부른 인간을 그린 셰익스피어 대표작이다. '리어왕'뿐 아니라, '맥베스'·'오셀로'·'햄릿'까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비장한 그리스 비극과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 오이디푸스처럼 제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운명의 수레바퀴에 짓밟혀 지옥의 구렁텅이로 내몰린 신화 속 영웅들과 달리, 셰익스피어 비극의 주인공들은 모두 제 무덤 제가 판 인간 군상이다. 누가 빛을 놓거나 음모를 짠 게 아니다. 자기 성격 때문에 망한 존재들이다.

리어왕의 오판은 바른말 멀리하고 아래에 죄악했던 스스로의 어리석음에서 시작됐다. 리어왕의 그 유명한 '러브 콘테스트'를 떠올려보라. 팔 셋

을 둔 늙은 아버지는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 첫째 딸 고너릴, 둘째 딸 리간, 그리고 막내 코델리아. 일찌감치 아버지 떠나 시집간 언니들과 달리, 늘 옆에서 자신을 돌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셋째 딸. 신하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늙은 왕은 묻는다. 애들아 애들이 너희 중 누가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 하늘땅 별별 운운하며 입 벌린 소리를 하는 언니들과 달리, 한결같던 효녀 코델리아는 담담하게 말한다. 어찌 사랑을 비교하거나 계량할 수 있느냐고, 하늘이 준 인연이니 평소처럼 아버지를 모실 뿐이라고.

어리석은 왕은 격노하고, 막내 주려고 떼어 놓았던 땅과 재산까지 언니들에게 선물로 안긴다. 코델리아에겐 지참금 한 푼 주지 않고 바다 건너 프랑스로 시집보내고. 그 이후의 비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주인공은 운명이 자신을 농락한 게 아니라 모두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팠다. 무지와 교만 경계하는 새해를

극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재산 받기 전엔 갖은 아양 떨던 두 딸이 이제 아버지를 짐작 취급하고, 리어왕은 흰 머리 풀어헤친 백수광부가 되어 광야에서 흘로 폭풍우를 맞이한다.

교만이 부른 오판, 무지가 불러온 파국이다.

맥베스 역시 욕망 때문에 타락하다가 선 넘고 파멸에 이르는 어리석은 인간의 대표 격이다. 용맹스러운 장수였지만, 사실 그 이상의 큰 애심은 없었던 사내. 반란군을 진압하고 돌아온 날, 한밤중 광야에서 맥베스

는 세 마녀를 만난다. 이어지는 예언과 주술, "만세, 앞날의 왕이시여!" 남편보다 더 야심만만했던 레이디 맥베스는 배우자를 부추겼고, 안 하겠다는 남자에게 선을 넘게 만든다. 결국 왕을 살해하고 스스로 왕좌에 오른 맥베스. 하지만 그 이후의 비극 역시 우리는 알고 있다. 이성이 아니라 끝까지 주술과 예언에 의지했던 맥베스 부부는, 결국 리어왕과 같은 최후를 맞는다.

베네치아의 용병 출신인 늙은 오셀로 장군은 어떤가. 출신에 대한 열등감과 젊은 아내의 치욕으로 시달렸던 이 못난 사내는 스스로 삶을 버렸고, 정의는 오직 자기만이 구현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졌던 헬미 역시 선왕의 복수에는 성공하지만, 새드엔딩으로 끝났을 뿐이다.

고전이 위대한 이유는 시간을 이겨냈다는 것. 가장 오래된 작품이 가장 젊은 당대의 교훈이라는 역설을 고전은 응변한다. 이왕 셰익스피어로 시작했으니, '템페스트'에 나오는 한구절로 마무리하자. "지옥은 텅 비었고, 악마들은 다 여기에 있구나."

세상은 지금 도처에 야수리장이다. 다시 한번, 당신을 망치는 것도 구원하는 것도 당신 자신이다. 교만으로 무장한 허영·오판·무지·공명심. 타인이나 신을 원망하지 말 것. 내일은 2025년의 첫날, 새해의 교훈이자 스스로의 경계로 삼는다.



작자 미상, 해와 달, '주님의 포도원서(書)' 중에서. 1450~1470년경, 잉글랜드에 채색, 24 x 17cm,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보물관 소장.

한 해와 달을 보며 다가올 종말을 대비해 쉬지 않고 회개하고 신의 축복을 기도했던 고귀한 인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험난한 세상에서 하루하루 고통받던 평범한 이들은 이 고통이 어디서 와서 언제 끝날지조차 모르지 않았을까.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63]

### 고통의 이유는 무얼까

풀 한 포기 없는 황량한 대지와 그 위를 덮은 하늘이 공허하다. 해와 달이 있으나 아둡고 침울한데, 빛이 있어도 밝힐 세상이 없고, 운기가 있어도 키울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15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제작된 기도서 '주님의 포도원서'는 두 권으로 이루어졌는데 현재 프랑스 그르노를 도서관에 있는 첫 번째 책에는 예수의 육화와 수난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구원의 과정이 담겼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 보물리언 도서관 소장본인 두 번째 책에는 그리스도의 적들이 세상을 활보하고 마침내 종말이 오고, 종말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도래해 천국과 지옥을 목도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중세 말, 유럽에서는 종말론이 횡행했다. 인구의 거의 절반을 앓아간 흑

사병이 잦아든 다음, 1453년에 막을 내릴 때까지 장장 116년이라는 세월 동안 백년전쟁이 이어지며 군사 분쟁이 끊이지 않았으나, 누구라도 말세라 한탄하며 힘겹게 살았을 것이다. 이 책은 종말을 예견하는 여러 짐작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죄지는 자들이 지역에서 받는 고문과 정의로운 이들이 천국에서 누리는 축복을 여려 페이지에 걸친 생생한 그림으로 보여준다. 어두운 태양과 빛이 없는 달은 성경의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에서 언스도의 적들이 세상을 활보하고 마침내 종말이 오고, 종말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도래해 천국과 지옥을 목도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책의 주인은 아마도 이토록 흥행

했다.

이 책의 주인은 아마도 이토록 흥행

했다. 인구의 거의 절반을 앓아간 흑

한덕수 대행마저 탄핵

## 정치는 끝났다, 이제 전쟁이다 … 5개의 전선 형성됐다

내전 넘어 국제전 … 《한미일》vs《북중러》

- ① 법정투쟁
  - ② 제도·정치권 투쟁
  - ③ 자유국민 저항 투쟁
  - ④ 언론 투쟁
  - ⑤ 국제정치 투쟁
- 광화문에 모여 끝까지 저항하자



▲ 12월 29일 광화문에 모인 자유우파 시민들 모습. © 유튜브=자유마을

"이재명과 함께 죽겠다"

한덕수 권한 대행마저 탄핵당했다. 무정부 상태다. 무안 공항 참사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외쳤다. "왜 계엄 당일만 보고 그 전은 안 보는가?" "이재명과 함께 죽겠다."

이재명도 속내를 드러냈다. "윤석열 옹위(擁位) 세력을 뿐 뿐이다." "뿌리 뽑겠다." "뿌리 뽑아? 일당독재 혁명!"

좌의 혁명꾼들과 이재명 일당, 초조?

《자유대한민국 vs. 좌의+부역자》의 대결은 이것으로 《정치를 넘어 전쟁으로》 갔다.

《좌의 혁명꾼들과 이재명 일당》은 왜 《막판 결전을 재촉》 했나?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모면하려는 발악 때문이다. 《반(反) 국가 세력+중국 공산당》도 꿈틀거렸을 법이다. 《중국인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국내 기회주의 정파와 언론》들이 좌의 혁명 쪽으로 가 붙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대로다.

5개의 전선 펼쳐졌다

이 사생결단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 제1 전선 : 《법정투쟁》

이 전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고비에 섰다. 그러나 이제 명이 그 결말보다 단 하루라도 먼저 감방 가면, 그와 대한 민국은 《구사일생할 수》 있다.

\* 제2 전선 : 《제도 정치권 투쟁》

이 전선에서 자유인들은 국민의힘을 더는 믿을 수 없다. 그들은 투항했다. 무력화 됐다. 배신했다. 꺼져라! 《자유대한민국 수호 국민연합》으로 가자!

\* 제3 전선 : 《자유 국민의 레지스탕스(저항) 투쟁》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극좌+부역자들의 가짜 뉴스 선동》이 이젠 잘 먹히지 않는다. 광화문 자유 시민들의 세(勢)가 좌의 흥보병들보다 월등히 세다.

\* 제4 전선 : 《언론 투쟁》

《탄핵 찬성 언론에 맞서 〔탄핵 반대 자유 언론〕이 치열하게》 싸운다. 독자들은 답하라. 《어느 편》에 설 건가?

\* 제5 전선 : 《국제정치 투쟁》

한국인들은 택하라. 《한·미·일+인도 태평양 자유 동맹 vs. 유라시아 전제주의 동맹》 결판에서 어느 쪽에 설 건가?

자유 아니면 죽음을! 대한민국 만세! 서방 동맹 만세! 우리 승리하리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뉴데일리 칼럼 더 보기 ▾

서자문 칼럼 : 미국통 한덕수가 필요하다

현재, 한덕수 대행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 최우선으로 하라

이양승 칼럼 : 중국 속국화는 시간 문제

무정부 상태 만들고 미소짓는 이재명 … 주변 인물 죽어나간 냉혈한 얼굴

뉴데일리

newdaily.co.kr



이 기사는 인터넷판  
뉴데일리([www.newdaily.co.kr](http://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12월 28일 게재 되었습니다.